

자료배포일 2020년 9월 25일(금) 10:00
자료배포처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솔라커넥트(주))

담당자	연락처
김정현 기금사업실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070-4355-2761 junghyun.kim@svsfund.org
이상은 투자매니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070-4355-2752 selee@svsfund.org
원정연 매니저 (솔라커넥트(주))	02-6931-0901 jungyeon.won@solarconnect.kr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주)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아크임팩트자산운용(주), 솔라에쿼티(주) '중소기업 공장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소 투자법인' 공동 투자

연내 100MW 규모 공장 지붕 태양광 보급 추진

- 사회적금융 최초 도매기금인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송경용)가 솔라에쿼티(주)(대표 이영호), (주)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대표 이덕준), 아크임팩트자산운용(주)(회장 이철영)와 함께 중소기업 공장 지붕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투자법인을 출범한다고 25일(금) 밝혔다.
- 합작 투자에 참여한 4개사들은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가속화 전환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민간혁신기업과 임팩트 투자사들이 힘을 모은 최초의 사례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중소기업 공장지붕은 가용부지가 많고 인허가 및 계통연계 등이 용이해 전국적 보급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지붕 임대료 선납을 통한 중소기업의 부가소득 창출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 공장지붕 가용부지 10GW 추정 (산자부)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금융 채원조달모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했고, 향후 지역 거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는 한국벤처투자 소셜임팩트펀드를 통해, 아크임팩트자산운용은 주요 출자자가 KB금융그룹인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를 통해 거래조건 구성 등 금융 이니셔티브를 행사하여 본 프로젝트 출범에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솔라에쿼티(주)는 솔라커넥트 그룹의 자회사로 태양광 투자 전문기업이다. 솔라에쿼티(주)는 투자 및 부지 확보, 임대차계약 체결, 인허가, 계통연계 등을 담당하며 솔라커넥트(주)는 금융조달, 중소기업 시공연계, 기자재, O&M(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IT 기반 발전소 통합 관리 서비스 'SAEM(쌈)'을 활용해 분산자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 투자법인은 기 확보된 대구, 경북, 대전, 충북 지역 등을 기점으로 올해 약 100MW 규모로 공장지붕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한다. 나아가 3년 내 1GW 규모, 10년 내 10GW 규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참조) 1GW 태양광 발전소 효과

□ 전기 생산량 : 461,000 가구 한 달 생활 가능

- 1MW 당 약 461 가구=태양광 발전소 평균 발전시간 3.5시간 기준 1개월 생산전력량 105,000kWh/평균 전력사용량 227.79kWh 기준

□ 이산화탄소 감축량

- 약 502,780 tCO₂/년의 탄소저감효과 발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O₂ 감축량계산기 기준. 발전단 국내전력 배출계수 평균값 적용)

- 소나무 213,957,000 그루 효과

(1MW 당 약 213,957 그루=502,800kgCO₂/연간 CO₂ 흡수량 2.35kgCO₂ 기준)

□ 고용 효과 : 태양광 발전소 직간접 고용효과 25,600명

- 미국에너지부, 1MW 태양광발전소직간접고용효과 25.6명 기준

-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은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공장지붕 태양광의 양적 보급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기관, 정부, 사회적경제조직,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주도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솔라에퀴티(주) 이영호 대표는 “유휴부지인 공장지붕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좋은 기회”라며 “향후에도 에너지전환 및 사회·경제적 기여에 적극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관련 사진(별첨) 1부. 끝.

